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전강 스님(1)

만공, 어느 것이 자네별인가  
전강, (땅에 엎드려 별을 찾는 시늉을 한다)  
만공, 옳다, 옳다!

만공(滿空, 1871~1946) 선사자가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님은 ‘셋별(啓明星)’을 보고 오도(悟道)하셨는데, 저 하늘에 가득한 별 중 어느 것이 자네의 별인가?”

그러자, 전강 스님은 곧 땅에 엎드려 허우적허우적 더듬으며 별을 찾는 시늉을 하였다. 만공 선사는 그것을 보고, “옳다, 옳다(善哉 善哉)”하며 인가하였다. 23세에 태안사에서 개오한 전강 스님은 만공, 혜봉, 혜월, 용성, 한암 스님 등을 찾아가 점검을 받았다. 특히 만공 스님으로부터는 마조 스님의 ‘원상(圓相) 화두’로 점검을 받고 인가를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전법계를 받았다.



주객이 하나될 때 깨달음 일어나

깨달는 것은 ‘별’이 아니라 ‘一心’

“별조가 일찍이 전하지 못한 것(佛祖未曾傳)나 또한 얻은 것(佛亦無所得)이 낱은 가을빛도 저물어 가는 데(此日秋色暮) / 뒷산 봉우리에 원승이 울음소리(猿啼在後峰).”

이 계승에서 ‘별조도 일찍이 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원상(圓相)이자 ‘한 물건(一物)이다. 이와 관련,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옛 부처님 나기 전에 의젓한 동그라미, 석기도 몰랐거니와 어찌 가섭이 전하랴. 이 한 물건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위의 별 찾은 공안은 전강 스님이 인가를 받고 며칠 지난 날 밤에 벌어진 신문답이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지만(因星見悟) /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悟罷非星) / 사물을 따르지도 않거니와(不逐於物) / 무정들도 아니라네(不是無情).”

부처님이 별로 인해서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은 별이 아니라, 한마음(一心)이요 도(道)라는 계승이다. 이는 마치 서산 대사가 공 스님으로부터는 마조 스님의 ‘원상(圓相) 화두’로 점검을 받고 인가를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전법계를 받았다.

“물건을 따르지도 않고 무정물도 아니다”고 한 것은 깨달음의 성품이 목석(木石)과 같지 않아서 신묘하게 안다는 뜻이다. 자성의 묘함은 미혹과 깨달음에 속하지 않고 시절인연 속에서 늘 밝게 드러나 있다는 의미다.

깨달음은 별이라는 객관 대상과 보는 주관이나 별 때 일어난다. 주객이 일체가 된 각성(覺性)에서 볼 때, 별이 마음 밖에 따로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무슨 별을 따로 찾을 것이 있겠는가.

수덕사 초대방장을 지낸 해암 스님이 “만약 만공 스님이 나한테 위 법문을 물으신다면 ‘스님은 어느 곳에서 제 별을 보셨습니까?’ 라고 여쭙더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을 암시하고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각성 스님

“제법(諸法)은 환상(幻)과 같고 꿈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아지랑이·건달바섯과 같으니, 마땅히 알라! 일체법은 오직 자신(自心)을 분별한 것일뿐” <대승입능가경>

<능가경>은 달마 대사가 중국에 선종을 전할 때 가져온 경전이다. 달마 대사는 2조 혜가 대사에 4권본 <능가경>을 주면서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의지하여 실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속고승전)”라고 했을 정도로 선종의 심오(心要)가 담긴 경이다.

이후 5조 홍인, 6조 혜능 대사 때부터 복잡하고 난해한 <능가경>이 <금강경>으로 대체되면서 관심도가 약해졌지만, 달마 대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경이다. ‘토끼 뿔’이나, ‘거북 달’이니, ‘돌 여인’이니 하는 격외어(格外語)의 출현이기도 한 <능가경>은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자 ‘회상승선의 지점서’로서 선 수행자들의 필독서인 까닭이다.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는 ‘교(敎)에 의지하여 선의 종지를 깨닫는다(藉教悟宗)’고 하는 달마선의 소의경전인 <능가경>에 대한 강의가 드물게 열렸다. 조계종의 대강백인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이 김현 김용사에서 <능가경>을 강의한 지 2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이번 법회는 공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불교서울전통문화진흥회 선교연구모임(운영위원장 박경)이 주관한 이번 강좌에는 법랍 15년 이상의 중진스님과 재가 학자·수행자 등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1년 동안 매일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5시 <능가경> 강의를 통해 교선일치(敎禪一致)의 순선(純禪)을 공부하게 된다. 이날 삼귀의, 반야심경, 법경 스님의 인사말,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축사 등으로

“모든 관념은 오직 스스로의 인식일 뿐”

각성 스님 20년 만에 ‘여래심지 요문’ 강의

이어진 입제식이 끝나자, 각성 스님이 스님들의 공부 열기를 찬탄하며 강의를 시작한다.

“달마 대사는 2조 혜가 대사에 선법을 전할 때 ‘능가경’과 <금강경>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4조 도신 대사 때까지 이 경을 수지하고 다니면서 선종의 심오(心要)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의 근원을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선과 <능가경>의 밀접한 관계로 초기의 선종은 능가종(楞伽宗)이라고까지 불리워졌다. 하지만 유식(唯識)을 알아야만 이해할 정도로 난해한 까닭에 5조 홍인 대사 때부터는 <금강경>이 선종의 소의경전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럼에도 <능가경>은 <화엄경><법화경><능엄경><원각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승(一乘)경전으로서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대승 논(論) 중의 왕으로 꼽히는 마명 보살의 <대승기신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승경전 100권의 핵심을 망라한 <대승기신론>의 소의경전을 <능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능가경>이란 뽕잎을 먹고 <기신론>이라는 비단이 탄생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8만 대장경이 있지

만, 달마 대사는 ‘나의 마음을 알려면 <능가경>만 보면 된다’고 했을 정도이니 그 중요성을 알만하다. 각성 스님은 “어려운 <능가경>을 요담하면 다른 경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스님은 <능가경>의 여래장(如來藏) 부처가 될 씨앗(사상)과 아뢰야식(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사상의상 <대승기신론>과 선종의 사상적 근원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여래장이란 불성의 다른 말로서, 중생의 번뇌 가운데 덮혀 있으면서도 번뇌에 더럽혀지지 않고 본래부터 청정하여 변함없는 깨달음의 본성을 말한다. 선종의 ‘견성성불론’이 여래장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어 각성 스님은 8가지 마음의 작용(八識)인 안·이·비·설·신·의 6식과 제7 말나식, 제8 아뢰야식을 설명하고, 세 가지 자성(自性) 즉 변계소집성(망상으로 이뤄진 것, 妄有)·의탁기성(인연이 만나 일어나는 것, 假有)·원상실성(진언인 불성자리, 實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능가경>이 강조하는 것은 중생의 여러식(識)의 근원은 무한한 과거로부터 쌓아 온 습기(習氣)로 인해 모든 것이 오직 자기 마음의 드러난 바임을

알지 못하고 일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식의 본성이며, 이것을 철저하게 안다면 주·객관의 모든 대립을 벗어나 무분별의 경계에 이를 수 있다는 법문이다.

이러한 도리를 각성 스님은 이렇게 강조했다. “부처님의 49년 설법의 골자(능가경)의 ‘삼계유심 만법유식(三界唯心 萬法唯識) 삼계가 오직 마음이고 모든 대상이 오직 인식일 뿐’이란 구절에 담겨있습니다.”

결국 <능가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이념과 분별의식이 ‘오직 각자의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唯自心所現)’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쉽게 상대적인 관념에 치우쳐서 분별심을 내므로, 이를 벗어나야만 열반 즉, 고통의 소멸과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참선 등을 통해 분별심이나 들뜬 마음을 안정시켜야만 바른 지혜가 나타나서 진실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능가경>의 심지법문인 것이다.

현수법장 대사의 <입능가심현의(入楞伽心玄義)>를 교재로 한 이번 강좌는, 선종의 소의경전에도 <금강경>에 비해 소외되었던 <능가경>의 유심(唯心)이며 일심(一心)인 선지(禪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02)735-1053

김성우 객원기자



대강백 각성 스님이 20년 만에 <능가경>을 강의하시며, 속을 막론하고 경청하고 있다.

**수영 게시판**

- **청양사·수도암 성지순례** = 서울 금강산원은 10월 19일 오전 6시 30분 김현 청양사, 수도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2)445-8484
- **전통력 강좌** = 경전연구회는 매주 셋째 월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옥수동 대승암에서 철불사 통광 스님을 초청, 역대 선사의 법어가 담긴 <전통력> 강좌를 연다. (011)420-7838
- **유마경** 강의 =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0월 2일부터 매주 화·수요일 오후 7~9시 양산 정토원 원장 정목 스님을 초청, 불이법문(不二法門)의 근본경인 <유마경> 강좌를 연다. (051)711-0700
- **3000배 용맹장진** = 법왕정사는 9월 29일 오후 9시부터 30일 오전 7시까지 분당 하안마음선원에서 3000배 용맹장진을 실시한다. (02)456-0035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래는 언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해빈-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E-mail: heegyun@avatar21.com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침대**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 장수구들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을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체Q (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목)

특별가 235만원



424 비트Q (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소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남단지2단지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 별도)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